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23년 제8호

가족과 커뮤니티 내의
복수의 시간성과 복수의 공간성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23년 제8호

가족과 커뮤니티 내의 복수의 시간성과 복수의 공간성

CONTENTS

<아젠다 기획>

- 도시에서 차이의 공간 만들기 - 공간 달콤 사례를 중심으로(류도향) 04
어둠을 꺼안기: 『소년의 블루스』에 나타난 귀여한 시간 연구(한우리) 10
귀환이민 유형화에 따른 재미 한인이민자의 귀환동기 연구(최대희) 16

<가족커뮤니티 그래픽스>

- 『한국의 사회동향 2023』으로 본 한국의 커뮤니티 변화양상 24

<정책보고서 리뷰>

- 인구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정책분야 이슈 발굴 모형 개발 26
가족형성과 사회 불평등에 관한 연구 28

* 가족커뮤니티 포커스는 가족커뮤니티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국·내외의
인문기반 다학문·융복합 가족 연구를 소개하고, 관련 사회 정책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포커스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문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인 정미라

발행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 3호관

전화 062-530-5218 팩스 062-530-5219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아젠다 기획

- 도시에서 차이의 공간 만들기

공간 달꿈 사례를 중심으로(류도향, 인문학연구원 교수)

- 어둠을 꺼내기:

「소년의 블루스」에 나타난 귀여한 시간 연구(한우리, 인문학연구원 HK교수)

- 귀환이민 유형화에 따른

재미 한인이민자의 귀환동기 연구(최대희,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기존의 가족 관련 정책, 제도, 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진단 함께

‘가족친화인문사회’의 도약을 위한 인문학적 의제를 발굴하는 기획논문을 소개한다.

* 아젠다 기획논문은 개별 연구자가 향후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요약입니다.

인용을 삼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에서 차이의 공간 만들기

공간달꿈 사례를 중심으로¹⁾

류도향 (인문학연구원, 교수)

I. 들어가며

이 연구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와 국가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도시공간의 현실 모순과 대결하면서 자본에 포섭된 도시의 중심성을 관계적으로 전유하고 재배치하는 대항 공간의 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이 글에서 대항 공간으로 정의하는 차이의 공간은 단순히 주류공간에서 소외된 타자들을 위한 소수자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공간을 사용하는 다양한 계층, 연령, 성별, 국적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실천이 상호작용하면서, 돈으로 환산되거나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체험과 삶의 서사가 창조되는 다공적 공간을 뜻한다. 필자는 공간 달꿈을 한가지 사례로 제시하고, 이 공간이 글로벌 기업과 국가 자본이 집중된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서 공간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공간적 실천과 상상을 수행하고 있는지 밝힘으로써 차이의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1) 현재 학회 투고중인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인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공간 달꿈은 서울 성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비영리 커뮤니티 공간으로, 2018년에 세워진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면적 471.52제곱미터의 건물을 물리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사진 1> 좌측에서 본 건물 전경



▲ <사진 2> 건물 외관에 새겨진 '공간 달꿈'

이 건물의 내부는 다음과 같이 크게 6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지하 1층의 다목적홀 '꿈길방', ② 1층의 갤러리&북카페 '쿰(Koum)카페', ③ 2층의 '달음방'과 '리더실'을 활용하는 '달꿈예술학교', ④ 외부인의 숙박을 위한 게스트 룸 2층 '다빈방', ⑤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3~5층 다가구주택, ⑥ 1층 주차장 및 마당.

하지만 이렇게 구획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식적 구분에 불과하다. 공간 달꿈은 공간 안에 사람을 담는 것, 즉 공간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연결한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에, 각각의 물리적 공간은 고정된 역할이나 정형화된 기능에 매이지 않고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띤다. 예를 들어 쿰 카페는 일차적으로 손님들을 위한 장소이지만, 관계성에 따라 미술가와 관객을 위한 예술 전시장으로, 학부형과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는 회의장으로, 지역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교실로, 지역주민들이 친교를 나누고 동네의 현안을 토론하는 공론장으로, 게스트룸에서 머무는 손님을 위한 아침 식사 장소로 변화한다.

여기서는 모임의 주최자나 손님으로서의 역할 부담이 없이 마음 편한 교류를 할 수 있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사회적 위치나 입장을 신경 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 언제든지 마음이 내킬 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누구에게 신세를 지거나 도움이 되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다. 이 공간의 분위기는 우연적인 요소와 비공식성이 강하다는 의미에서 가볍다. 하지만 이 공간은 자기중심적인 의도에서 이뤄지는 일회성 만남이나 기브앤테이크의 합리적 교환관계 이상의 어떤 커뮤니티적 응집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응집성은 통일된 하나의 이념이나 집단정체성이 전제된 공동체의 속성이 아니며, 동시에 공동체로 집결된 주체들 개개인에 내재된 개별적 특성으로도 이해되기 어렵다. 이 응집성은 커뮤니티로서 공간 달꿈이 참여자들의 마주침에 의해 구성되는 다공적 공간의 힘, 즉 중층적이고 다차원적인 관계를 활성화하는 공간 구조를 매개로 형성된다고 본다.

이 연구는 이론적인 문헌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했다. 공간 달꿈의 건축 설계도면, 온라인 카페, 유튜브 등 SNS에서 기록과 소통의 흔적, 신문 기사, 그밖에 공간 달꿈의 이념과 역사를 담고 있는 여러 문서들(달꿈예술학교 정관, 연혁, 재정보고 문서 등)을 수집·조사하였고,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의 방문을 통해 16명의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Ⅲ. 도시공간의 이념: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향한 하나

공간 달꿈은 한 명의 아이를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출발했다. 달꿈이라는 명칭은 이미 죽었다고 판정받은 12살 어린 소녀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다. 일어나라 소녀야(Talitha Koum)”라는 성경 구절에서 가져온 ‘달리다 쿼’의 약자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에 의한 판단 기준에서 죽었던 소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달꿈예술 학교는 사회에서 뒤처지고 환대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았다.

달꿈예술학교는 국내외 여러 대안학교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어떤 교육의 이념과 방법을 지향해야 하는지 오랜 시간 고민과 성찰을 거쳤다. 그리고 이미 다양한 대안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새로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현존하는 540개 대안학교가 품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는 점에서 찾았다. 달꿈예술학교의 학생은 단 한 명이며, 입학부터 졸업까지 오로지 그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한 명의 아이를 위해 모두를 줄 수 있는 학교”의 교육과 모든 혜택은 무상으로 주어진다(재료비, 수업료, 후원금 등 일체의 비용이 없다).

이렇게 달꿈예술학교의 이념은 ‘한 사람을 향한 모두’에서 출발하지만, 그렇다고 한 사람의 가치가 종착역은 아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 또 다른 만남으로 가기 위한 통로이기에, 하나를 위한 마음은 ‘모두를 향한 하나’를 향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가치가 타자와 만남과 연대 속에서 발견되고 온전히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교육 철학의 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달꿈예술학교는 한 사람의 가치를 타자와의 차이 속에서 또는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문제로 이해한다. 이런 이유로 이곳에서 교육은 무엇을 가르친다기보다 근본적으로 관계맺기를 중재하고 연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달꿈예술학교는 한 명의 아이를 위한 정규 학교, 그리고 지역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의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된다. 방과후 학교 역시 지역민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이는 정규 학교의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배우게 하는 장치이자, 지역민에게 공간의 가치를 개방하는 봉사의 의미를 갖는다.

2018년 이래 2023년 12월 현재까지 공간 달꿈이 본래의 이념을 퇴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기업이나 국가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의 풀뿌리 운영방식에 있다

고 보인다. 공간 달꿈을 움직이는 핵심 기반은 '자원봉사'이며, 재정은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비 또는 기업 후원을 일체받지 않고 오로지 민간 후원과 쿼카페의 기부로 운영된다. 공간 달꿈은 영리를 추구하거나 학교를 외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 않는 대가로 이런 위험에서는 자유롭다. 하지만 그만큼 한 해 한 해 공간 달꿈의 운영과 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IV. 차이의 공간 만들기

1. 사람, 사건, 자연을 잇는 공간직조

공간 달꿈이 학생, 거주자, 방문객, 선생님, 지역 학생, 봉사자, 바리스타, 연습생, 단체, 마을 사람, 손님, 학부모 등 다양한 이들이 아무 제약 없이 오갈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무엇보다 쿼 카페에서 비롯된다. 쿼 카페는 공간 달꿈의 수익을 위한 경제적 활동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쿼 카페는 이 단일 기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차로이자 학교와 마을의 접점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쿼 카페는 학교 상담 전화와 카페지기 봉사, 바리스타 수업 등 복합적 실천을 통해 공간 달꿈의 이념을 가장 구체적으로 시연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공간 달꿈에는 주차장 한켠에 작은 마당과 3층 테라스 옥상 텃밭 등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건축을 지향했다. 당초에는 큰 정원을 만들고 싶었지만, 건축 규정에 따라 주거공간의 면적상 4대의 주차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원을 만들 수가 없었다. 건축물 사이로 나무가 자라게 하려고 했던 계획도 무산되었다. 대신 마당에 심은 작은 단풍나무가 건물 사이에서 매년 키를 키우며 자라고 있다.

2.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공간실천

공간 달꿈은 한 사람의 존재의 귀함을 지향하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무엇보다 '주관적 경험과 지식', '판단'이라고 말한다. 머리로 깨달아 아는 지적 수준의 것이 아닌, 몸으로 함께 앉아 있어주는 몸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특별한 소통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이야기하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를 의미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같은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한 정신을 구호로만 외치지 않고 공간에서 함께 있다보면, 학생은 선생님을, 선생님은 학생을, 서로가 서로를 몸으로 체득하고 알아가게 된다.

달꿈예술학교가 예술을 매개로 한 교육과 활동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지시적이고 비언어적으로도 느끼고 전달할 수 있는 예술의 특성은 몸의 복원, 무엇보다도 나와 너 사이에 감각적이고 에로스적 공간, 말과 음성, 후각과 청각의 공간을 복원한다.

이를 통해 공간 달꿈은 자본주의적 능률성과 경제성의 논리에 따른 삶에 혼란을 만들어내며, 경제적 생산이 우위를 점하는 사회에서 비경제적 관계가 인간살이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을 준다. 이를 통해 공간 달꿈은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는 다른 공통의 감각 또는 커뮤니티 감각을 개발하고 연습하는 장을 제공한다.

3. 과거, 현재, 미래를 교차하는 공간역사

공간 달꿈이 구체적으로 기획된 것은 학교의 필요성 때문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위한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달꿈예술학교장이 신학대 재학 중 다니던 정릉제일교회에서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재산권 분쟁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사회가 1997년 금융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금융, 기업, 무역 등 경제 구조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동안 한국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정릉제일교회 사건은 한국교회가 사유화, 대형화, 독점화, 불법 계승 등을 통해 세속화하면서 자본주의적 기업을 모델로 변모해가는 2000년대 이후 자본화 과정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었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공간 달꿈의 철학에는 달꿈예술학교장 A가 어린 시절부터 체험한 사람의 가치가 녹아 있다.

이러한 가치는 단순히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공간 달꿈을 찾는 이들의 꿈과 마주치면서 공간을 역동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메리필드는 공간의 문제란 “정동의 풍경 (landscape of affect)에 관한 문제”²⁾라고 정의한다. 사람들이 꼭 말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느낌으로, 특히 행동으로, 활동을 통해 집단적인 분발하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정동적 풍경이... 인간적 열정이 표현되는 역동적인 도시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공간 달꿈의 역사에는 “정서적인 핵, 혹은 중심”³⁾이 있다. 이 중심이야말로 사람 지향적인, 상황적인, 관계적인, 다공적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용사로 수식될 수 있는 공간 달꿈의 가능 조건이며,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도시의 중심성을 재배치하는 공간정치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

2) 앤디 메리필드, 김병화 옮김 (2015). 『마주침의 정치』 이후, 279쪽.

3)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2014).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91쪽.

V. 나가며

공간 달꿈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문제를 특정한 양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를 다른 것들과 얽히게 하며, 특정한 사람, 사건, 자연과 부딪힘 속에서 이 일시적 만남을 어떻게 대할지 묻는다. 이는 함께-있음에 대한 끊임없는 경합과 협상의 도전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움과 불협화음을 조정해가는 것이 바로 공간 달꿈의 미시정치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화해로 귀결되지 않으며, 각각의 만남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칙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매번 다른 판단과 배움과 즉흥성을 요구한다. 차이의 공간에서 미시정치는 곁에 있는 사람과 낯선 이방인의 존재에 존중(respect)과 응답(responsibility)을 필요로 한다. 존중과 응답은 합리성과 도덕적 양심을 지닌 개인적 차원의 윤리가 아니라, 타자를 향해 깨어 있는 몸의 공간감각과 과거, 현재, 미래를 교차하는 역사적 상상력에 의한 관계적 윤리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앤디 메리필드, 김병화 옮김(2015). 『마주침의 정치』. 이후.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2014).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어둠을 꺼안기: 「소니의 블루스」에 나타난 퀴어한 시간 연구¹⁾

한우리(인문학연구원, HK교수)

I. 「소니의 블루스」에 나타난 퀴어 시간성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의 「소니의 블루스」(“Sonny’s Blues”)는 이제는 거의 연락조차 하지 않는 동생 소니를 다시 만나고 이해하려 시도하는 형의 관점에서 서술된 텍스트이다. 1957년에 발표된 이 단편은 형과 동생 사이의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을 아름답게 포착한다. 소설에서 화자와 동생은 포스트-한국전쟁 할렘에서 생존하려 노력한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화자 ‘나’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신문을 통해 남동생 소니가 헤로인을 소지한 죄목으로 체포되었음을 알게 된다. 신문을 통해서야 동생의 소식을 알게 된 형은 이 소식을 그의 안온한 일상을 침범하는 위협으로 느낀다. 그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생의 범죄사실은 중산층에 동화되려 애쓰는 그의 삶에 대한 침범이자 불행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처럼 느껴진다. 소니는 형에게 있어 뱃속에 든 얼음장처럼 불편한 감정이 가시질 않는 존재이다.

형이 동생을 보는 시각은 기존의 미국 사회가 흑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유사하다. 미국 사회는 흑인을 백인 중산층 규범과 이성애가부장성(heteropatriarchy)에서 벗어나는 병리화된 존재로 상정해왔다. 예를 들어 군나 뮈르달(Gunnar Myrdal)은 1944년 저서 『미국의 딜레마』(An American Dilemma: The Negro Problem and Modern Democracy)를 통해 흑인의 문화가 미국의 이상에 걸맞지 않으며, “왜곡되고 병리화되어 있다”고 설명한다(928). 무엇보다 흑인 가족의 불안정성²⁾, 흑인을 위한 교육시설의 부적합성, 흑인교회가 보이는 감상주의(emotionalism), 흑인 놀이문화의 부적절성, 흑인 사회 조직의 병리성, 평균적 흑인이 보이는 관심사의 협소성, 정치적 사고의 편파성, 높은 흑인 범죄율, 다른 분야는 제치고 예술에만 매진하는 것, 미신, 성격적 어려움, 다른 특징들에서 사회 병리적이라고 지적한다.

로더릭 퍼거슨(Roderick Ferguson)에 따르면, 훼손되고 깨어진 미국 가정의 이미지로 상상되는 흑인의 문화는 언제나 이성애와 가부장적 규범에 대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흑인의 존재는 언제나 비이성애규범적(nonheteronormative)이라고 표지된다.

1) 이 글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 커뮤니티사업단이 개최한 2023 “탈경계와 가족커뮤니티” 학술대회에서 발표 및 『인문학연구』 제66권(2023. 7. 31.)에 게재된 논문 「어둠을 꺼안기: 『소니의 블루스』에 나타난 퀴어한 시간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2) 흑인 가족의 독특성은 노예제의 산물로, 대부분의 노예주는 노예 간의 결혼 여부에 신경 쓰지 않았거나 결혼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다. 노예 남편, 아내, 자식을 따로 떼어 팔기도 했으며, 노예간 결혼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단순히 결혼을 떠나면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해방이후, 결혼안정성은 도시로의 이주와 매춘, 임시결혼의 증가, 하숙인 등의 요소로 방해받았으며, 전반적으로 흑인들은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맺었다. 남부 시골 지역에는 노처녀나 노총각을 찾기 힘들었고, 이혼은 상호간의 동의나 별거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재결합도 쉬운 편이며, 재혼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이 없다(Myrdal pp.930~934).

퍼거슨에 따르면 이성애적·가부장적 결혼으로 섹슈얼리티를 규율하고 주체의 합리성을 확인하는 법제화된 제도는 합리성의 체제이며, 이 체제 내에서 시민권의 온전성, 권리와 특권의 할당이 중요해진다. 전형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차이의 양식으로서 흑인성과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시민권의 안티테제였으며, 그러므로 시민적 권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졌다(Ferguson, 2000:421).

예를 들어, 노예해방은 백인 여성이 성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것과 혼혈인구가 증가할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성적 규제를 불러일으켰다. 퍼거슨은 사실상 흑인의 비이성애규범적 성적 실천을 규율하는 것이 1863년에 세워진 미국 자유민 조사위원회(The American Freedmen's Inquiry Commission)의 주요 의제였다고 주장한다. 노예들이 일부일처제를 따르지 않고 유동적인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고 있는 실상은 그들이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없음에 관한 증거이자 성적 타락으로 여겨졌다. 위원회는 흑인에게 이성애 결혼을 시민권의 조건으로 강제하였으며 결혼과 일부일처제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해방 노예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율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는 이성애 결혼으로 생겨난 남편에게 법적으로 가정을 보살필 책임을 떠넘기며, 국가와 이전 노예주로 하여금 해방 노예를 보살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Ferguson, 2000:422). 이성애 가부장적 가정이 만들어짐에 따라 가정은 모든 물질적 재난과 고통을 흡수하고 유지하는 장소가 되었고, 흑인 빈곤은 흑인 내의 친밀한 사적 관계 내에서 벌어진 문제로 축소되고, 국가와 자본이 착취해온 역사는 부정되고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남겨졌다. 흑인 가족은 백인 이성애 가부장 중산층 가족이라는 판단 기준에 따르면 언제나 모순적이고 병리적인 위치에 머무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흑인은 규범에서 벗어나고, 동화되지 못한 이탈자가 된다.

이 소설에서 화자인 형이 동생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이와 유사하다. 화자의 출근길에 신문에 실린 소식으로, 친구의 얼굴로 나타난 소니를 화자는 문젯거리이자 골칫거리로 치부한다. 소니는 마약중독자에 체포되기까지 했으며, 자기 파괴적이고 죽기를 원하는 듯 보인다. 적어도 형은 소니가 죽길 원한다고 여긴다. 형은 묻는다. “말해봐, 그 애는 왜 죽고 싶어 하는 거야? 그 애 죽고 싶은 게 틀림없어. 스스로를 죽이고 있잖아. 왜 그렇게 죽길 바라는 거야?”(108) 소니는 밤마다 나이트클럽을 헤매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활동한다. 그는 학교를 빠지고, 그리니치빌리지에 위치한 백인 여성의 아파트를 드나들며 음악 하는 친구들과 어울린다. 그는 생산적이거나 근면 성실하지 않고 길을 잃고 헤매며 방황한다. 마약을 하는 소니는 형의 시선에선 죽길 바라는 자이고, 정상적이고 일상적이라 여겨지는 삶의 양식에서 이탈하는 자이다.

소니의 삶은 화자인 형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성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퀴어 시간성으로 명명할 수 있다. 퀴어 시간성이란, 가족, 이성애, 재생산을 기준으로 한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으며, 인지되지 못하는 삶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삶과 존재 양식을 지칭한다. 퀴어 시간성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를 휩쓴 에이즈 위기 속에서 만연한 질병, 감염, 죽음 및 위협과 퀴어 공동체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에이즈 위기에서 보호받아야 할 '시민'으로서 호명받지 못한 채 방치된 퀴어 공동체는 그들이 시민으로서 살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것이 이성애 규범적 가족 중심 시민 모델이 가정하는 시간성 개념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잭 할버스탐(Jack Halberstam)은 저서 『퀴어한 시간과 공간에서』(*In a Queer Time and Place*)를 통해 이성애, 가족, 재생산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조직된 시간성에서 일탈한 다른 삶의 경험을 지칭하기 위해 퀴어 시간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할버스탐에 의하면, (백인 중산층이라는) 표준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상성의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시간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 안전, 진보, 상속 등으로 틀 지워진다. 구체적으로 서구 철학에서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대비하는 일, 장수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대로 짧고 강렬하게 사는 삶을 택한 이는 미숙하고도 위험한 자로 여겨진다. 후자는 전자에 내포한 시간성에서 벗어나는 시간 양식에 기반한다(Halberstam, 2005:4). 즉 이성애, 가족, 재생산의 제도화는 유년기-결혼-육아-죽음 순으로 이어지는 시간성을 따라 살도록 강제하고, 근면하게 생산적인 노동하기, 건강 추구하기 등의 규범과 가치를 따르도록 한다. 이러한 도식에서 미성숙한 아이는 청소년으로, 다시 성숙한 성인으로 변모해야 하며, 장수는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고, 미래가 아니라 오로지 현재에만 관심을 두는 삶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병리화 된다.

할버스탐은 이러한 생애 각본이 중산층의 체면(respectability)과 연동하는 정상성에 대한 관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다(4). 재생산의 시간성은 가족의 시간성이며, 이를 통해 가족의 미래는 국가의 안정과 미래와 연결된다. 이와 달리 퀴어 시간성은 규범적인 시간성에서 벗어나는 삶과 존재를 설명한다. 출생-결혼-재생산-죽음이라는 삶의 각본에서 벗어나 아무런 각본이 없는 삶을 숙고한다. 나아가 미성숙하고, 불온하며, 병리적이라 여겨지는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시간을 재사유해 볼 것을 제안한다. 남들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때 결혼이나 임신을 선택하지 않는 내가 뒤쳐진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특정한 시간성에 기반한 정동(affect)이다. 미리 정해진 생애 각본은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자연화되는지 감추고 여성의 재생산과 이성애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Halberstam, 2005:5). 즉 퀴어 시간성은 중산층 이성애 가정의 결혼, 출산, 양육에 기인하는 (생물학적 시계에 매달린) 고착된 시공간을 폭로한다. 이를 통해 시공간의 체계모니적 구성이 특정한 권력에 따라 젠더화되고 성애화되어있음이 드러난다. 퀴어 시간성 논의는 전형적인 삶의 각본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시간성을 창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 서사에 열려있게 한다. 이는 퀴어가 성관계를 맺는 방식에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급진적이거나 대안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연결된다.

II. 블루스에 내재한 고통을 초월하기

소니의 블루스에서 음악은 평범한 흑인의 삶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그려진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시도를 벗어나 생을 걸고 하는 분투로 묘사된다. 실상 소니는 감옥에 있던 일년 간 피아노를 만진 적도 없었다. 일 년 만에 피아노 앞에 앉은 그는 화자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연주 대상과 관계를 맺는 연주자를 본 적이 없을 정도라 느낄 정도로 지독한 고뇌 속에 있다(140). 그에게 부족한 것은 연주 기술도, 몰입도 아니다. 소니가 음악을 통해 하려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석방된 이후의 그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되고자 하는 이는 누구인지에 직면하려는” 시도이다(Braggs, 2015:158). 소니는 힘겹게 연주를 시작하지만, 그 연주는 이내 비틀대다 멈춰버린다.

그와 그의 피아노는 더듬어가며, 한쪽에서 시작했다가, 겁에 질리고, 멈춰 선다. 다른 방향으로 시작했다가, 공포에 질리고, 시각을 표시했다가, 다시 시작했다. 그런 뒤 방향을 찾은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금 공포에 질리고, 멈춰섰다.

he and his piano stammered, started one way, got scared, stopped; started another way, panicked, marked time, started again; then seemed to have found a direction, panicked again, got stuck. (140)

화자는 무언가가 시작됨을 느낀다.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140). 소니는 마치 그가 생을 두고 분투하였듯이 음악을 두고 분투한다. 그와 피아노는 신음을 내고 질겁하고,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다. 그가 연주를 시작하려는 모습은 누군가 힘겹게 이야기를 꺼내어 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소니는 무언가를 담아 말하고자 한다. 그가 전달하려는 내용은 흑인이라는 인종 공동체가 겪었던 어두운 역사이고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겪은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소니는 이를 예술로 재발화하고자 한다.

III. 어둠을 꺼안기: 재탄생과 다시 쓰기

소니를 다시금 처음 만났을 때 화자는 소니가 마치 “빛으로 피어내길 기다리는 동물”(111)과도 같아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니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와야 한다고, 일탈적 시간성에서 벗어나 규범적 주체로서 올바른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화자가 보기에 무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밴드의 멤버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움직이는 동안, 무대를 강하게 내리찍는 조명을 피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어둡하고 친근한 분위기, 친밀한 흑인들의 인사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화자는 이제 어둠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빛이야말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종의 지옥불,

“화염”처럼 느낀다. 어둠과 빛의 의미는 뒤바뀌고 화자는 청중이 속한 어둠 속에서 안락함을 느낀다.

키이스 E. 바이만(Keith E. Byerman)은 클럽을 묘사하며 흑인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둠과 비좁은 통로를 지나야 하는 이곳이 일종의 (재)탄생의 통로(a birth passage)로 그려진다고 지적한다(369). 화자가 느끼는 심경의 변화는 그를 규범적 주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뿌리에 다가가 흑인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인종 공동체의 분투를 다시 한번 이해하며 자기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과 연결된다. 볼드윈은 에세이 「다음은 불」(“The Fire Next Time”)에서 “두려운 역설은 아메리칸 니그로가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한 어디에도, 어느 대륙에도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과거를,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안에서 익사하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과거를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333). 즉 화자는 길을 찾기 위해 길을 잃는다. 익사하지 않고도 깊은 물속에 빠져들 줄 알아야 한다. 화자는 이제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성장’할 수 있다.

소니가 피아노 앞에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언어를 음악을 통해 발견해낸 것처럼 고통을 껴안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며 인종적 과거를 직면하는 것과 같다. 소니가 어둠, 슬픔, 위협을 껴안고 그것을 다른 언어로, 예술로 변화시켰어야 했던 것처럼 화자 또한 할렘을 받아들이고 그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소니를 만나 택시를 타고 할렘 거리를 돌면서 형은 차창을 통해 찾으려 하는 것이 “우리가 남겨둔 우리의 일부”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과거의 자신을 되찾으려는 시도가 언제나 “잃어버린 신체가 아파오는 직면과 고난의 시간”임을 깨닫는다(113). 그러나 그 고통을 껴안는 것, 어둠을 껴안고 포용하는 것은 미래와 맞닿으려는 시도이며, 반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시작이 된다.

참고문헌

- 콜린스, 패트리샤 힐. 박미선, 주해연 역 (2009). 『흑인페미니즘사상』. 여이연.
- Albert, Richard N (1984). "The Jazz-Blues Motif in James Baldwin's 'Sonny's Blues.'" *College Literature* 11.2: 178-85.
- Baldwin, James (1997). "Many Thousands Gone." *The Norton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 Ed. Henry Gates. New York: Norton, 1659-70.
- Baldwin, James (1991). "Sonny's Blues." *Going to Meet the Man*. New York: Penguin, 103-42.
- Baldwin, James (1998). "The Fire Next Time." *James Baldwin: Collected Essays*. New York: The Library of America, 291-347.
- Baldwin, James (1998). "The Discovery of What it Means to be an American." *James Baldwin: Collected Essays*. New York: The Library of America, 137-42.
- Berlant, Lauren (2020). *Cruel Optimism*. Durham: Duke UP.
- Braggs, Rdhida K (2015). "Evoking Baldwin's Blues." *James Baldwin Review* 1 : 152-63.
- Byerman Keith E (1982). "Words and Music: Narrative Ambiguity in 'Sonny's Blues.'" *Studies in Short Fiction* 19.4 : 367-72.
- Edelman, Lee. (2020). *No Future: Queer Theory and the Death Drive*. Durham: Duke UP.
- Ferguson, Roderick (2000). "The Nightmares of the Heteronormative."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4.4 : 419-44.
- Halberstam, J. Jack (2005). *In a Queer Time and Place: Transgender Bodies, Subcultural Lives*. New York: New York UP.
- Myrdal, Myrdal, Gunna (1944). *An American Dilemma: The Negro Problem and Modern Democracy*. New York: Harper&Brothers.
- Tsomondo, Thorell (1995). "No Other Tale to Tell: 'Sonny's Blues' and 'Waiting for the Rain'." *Critique* 36.3 : 195-209.
- Tracy, Steven C (2015). "Sonny in the Dark: Jazzing the Blues Spirit and the Gospel Truth in James Baldwin's 'Sonny's Blues'." *James Baldwin Review* 1.1: 164-78.

귀환이민 유형화에 따른 재미 한인이민자의 귀환동기 연구¹⁾

최대희(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I. 머리말

오늘날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민의 급속한 증가가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이민의 진행 방향에 역전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선진이민국가에 거주하던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동유럽 출신의 이민자 혹은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출신지 국가로 귀환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으로의 귀환이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민은 197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면, 귀환이민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귀환이민은 국제이주의 하나의 하위 과정으로 간주된다. 그간 귀환이민은 신고전주의 경제학, 노동이주신경제학, 구조주의, 초국주의, 사회연결망 이론 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Cassarino, 2004). 그러나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귀환이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모호하다. 그것은 귀환이민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막 붐을 이루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귀환이민은 그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을 만큼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귀환 이민 정의에는 특히 귀화한 사람이 부모님의 출신국가로 귀환하는 경우 이를 귀환이민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영구 귀환과 일시적 귀환 구분의 문제 등 다수의 논란거리가 얽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 겨울을 전후로 한국으로 귀환한 4명의 재미한인이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미국이민을 준비하는 모임(미준모)”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모집되었다. 인터뷰는 코로나 상황이 다소 진정된 2022년 봄부터 겨울까지, 각각 2-3차례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에 기반 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법률적, 정책적 귀환이민 배경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목표는 대상자들의 귀환이민 동기를 그들의 내러티브를 토대로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그들의 귀환에 추동력을 제공한 것은 경제적 요인인지 아니면 정서적 요인

1) 이 글은 논문게재 예정중인 글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에 주목하였다. 이때 본 연구는 그들이 수용사회에서 어떤 소속감 또는 소외감을 느꼈는지를 밝혀내면서, 그들의 귀환의 정서적 동기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그들이 초국적 이민자로서의 특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귀환이 자신의 이주 궤적에 종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본 연구에는 구조주의적 접근에 토대를 둔 Cerase의 유형론과 초국주의적 관점의 영향을 받은 Dienel의 유형론이 참조되는데, 이때 각각의 유형은 인터뷰 대상자의 사례들의 내용과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띤다.

II. 경제적 동기인가? 초국적 이민자인가?

본 연구는 우선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A를 비롯한 다른 인터뷰 대상자의 귀환이민 동기를 살펴보았다. A의 귀환은 미국사회에서의 경제적 실패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다. 미국에서 네일숍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한국에서 직장생활 했을 때보다 훨씬 높았고, 그녀는 미국에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 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여자인 제가 전문직 그런 것도 아니고, 박물관 큐레이터도 몇 년 하긴 했는데 (...) 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막상 미국 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보니까. 처음 알았어요. 주 4일 근무했는데 정말 많은 캐시를 손에 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유로웠어요. (...)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A의 사례는 Cerase가 말하는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실패의 귀환’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녀는 결혼이민자로서 미국사회에 잘 스며들었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했다. 지금도 미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한다. 또한 그녀의 사례는 Dienel이 말하는 ‘정서적 귀환’ 유형과도 무관하다. 그녀는 고향에 남겨둔 가족이 그리워 한국으로 귀환한 것도, 한국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에 지쳐 돌아온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한국이 생각하는 대목은 주로 음식이다. 귀환 장소로 자신의 고향을 선택한 것은 가장 익숙한 그리하여 귀환하여 집을 구하고 창업할 때 가장 용이한 장소였을 뿐이다. 고향은 그녀에게 미국 동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벚꽃이 만개한 장소로 기억될 뿐이다.

그녀는 남편만 아니었으면 한국으로 귀환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생활에 만족했기 때문이다. 미국인 남편이 창업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고, 그녀는 가족과 함께 귀환했을 뿐이다. 요컨대 그녀의 귀환이민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말하는 경제적 의미의 ‘실패’의 귀환도 아니고, Cerase가 말하는 사회통합에서 실패한 귀환도 아니며, Dienel의 ‘정서적 귀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A의 사례는 귀환을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성공’과 ‘실패’로 분류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녀가

족의 미국으로의 이민에는 남편의 취업이라는 경제적 측면 외에 자신의 운명에 “역마살”이 끼었다고 표현하는 데서 드러나는, ‘외국살이’에 대한 소망과 공평하게 남편의 나라에서도 살아보겠다는 ‘배려’의 차원이 같이 작동했다.

A 가족에게 한국으로의 귀환은 이주 주기의 종결이 아니다. 현재 태국이나 필리핀으로의 재이민을 꿈꾸고 있는 그녀에게 한국으로의 귀환은 이주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새로운 ‘이주의 이전’이다. “그냥 다시 미국 갈까?” 남편이 물어본 적이 있다. 아내는 되묻는다. “당신은 어때?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또 정착을 못할 것 같은데. 가면 할 게 없잖아.” 그녀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남편은 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언제든 떠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국에는 미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전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관건이다. 그녀는 미국이 아니라, 태국이 어떻겠느냐며 남편에게 역제의를 한다.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국과 미국 또는 제3의 국가를 가리지 않고, 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삶의 목적지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A는 21세기에 전형적인 ‘초국적 이민자’ 유형에 가깝다. 그녀의 이민과 귀환이민은 그녀의 초국적 생애전략에서 하나의 이정표에 지나지 않는다.

귀환이민 ‘이후’가 귀환이민 ‘이전’이 되는 경우는 C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나이를 따지는 한국사회는 그녀에게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동료들은 직장 내 서열 의식 등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그녀를 ‘미국인’ 취급했다. 한국사회에 대한 그녀의 ‘반감’은 바로 King과 Christou가 명명한 ‘뒤집힌 초국주의(reverse transnationalism)’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의 뒤집힌 초국주의는 그리스로 귀환한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이민지였던 미국과 독일을 ‘마음의 고향’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한국사회에 대한 그녀의 ‘반감’ 역시 그녀로 하여금 미국을 마음의 고향으로 느끼게 만든다. 그녀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드러낸다.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 늘 그리웠고, 한국에 오니까 다시 미국이 그리웠다는 것이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미국에 있을 때는 계속 한국에 오고 싶었거든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계속 미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왜 그런지? 그걸 저는 모르겠어요.”

귀환과 재이민과 관련하여도 표출되는 C의 이러한 양가적 감정은 바로 초국적 이민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III. ‘실패의 귀환’인가?

두 번째로 본 연구는 Cerase의 귀환이민 유형 분류 중 ‘실패의 귀환’이란 관점에서 특

히 B의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했다. B는 자신의 귀환을 결정지은 마음속의 병을 “외로움”이란 단어로 풀어냈다. 그녀는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제 여기서 살 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그 순간부터 본질적인 외로움이라는 게 있더라”고 털어놓는다. 성공했다고 느낀 그 순간부터 속마음은 텅 비어갔다. 그런데 그녀가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고향 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 가족과의 이별에서 오는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외로움의 정체는 자신의 속마음을, 힘든 문제를 털어놓을 만한 친구조차 없는, 미국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민자가 느끼는 외로움은 수용사회로의 해당 이민자의 소속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녀는 미국사회, 아니 보다 좁게 그녀가 살고 있던 미국사회로의 소속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미국사회의 차별과 이방인에 대한 시선은 그로 하여금 그가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을 늘 일깨워 주었다.

“(미국사회에 소속되겠다는 - 필자) 마음으로 갔는데, 철저하게 이방인인 거를 계속 각인시켜요.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하루에도 수십 번 얘기를 하다 보면 (...) 거기 특히 텍사스에는 옛날 한국전 참전하신 용사들이 많아요. 베테랑들이. 그러면 옛날 50년대의 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살던 한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트남 시골 얘기하듯이, 화장실도 없고, 문도 없는 집인데, 우리가 가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등. 그런 얘기를 이제 한 10년 들으면 지겨운 거죠.”

그녀는 그런 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주류사회로부터의 ‘타자장소화’를 경험했다. 타자장소화는 어쩌면 당연하게 그녀 내면에 “외국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자기장소화’ 기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스스로를 한 사회의 주체가 아닌, 이방인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그녀가 미국생활을 떠올리며 소환한 첫 기억은, Cerase가 이탈리아로 귀환한 이민자들의 인터뷰에서 ‘실패의 귀환’과 관련지어 지적한 것과 동일한 “외로움”과 “고통”이었다 (Cerase, 1974: 249).

한국으로 귀환한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행복하다. 그녀의 행복은 무엇보다 이민자로서 항상 긴장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삶, “자신을 이방인처럼 쳐다보지 않는”, “모두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과 함께 있는”, “튀지 않는” 삶으로부터 오는 안도감이다. 이러한 안도감은 Cerase가 ‘실패의 귀환’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지적한 심리적 ‘안정감’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그에 따르면, “자신에게 소속감을 주는 친숙한 어떤 것”에 매달리면서, 수용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이민자는 결국 귀환한다(Cerase, 1974: 249). 귀환이민과 관련하여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실패’ 가설은 귀환이민자의 동기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이민과 귀환이민의 틀을 지우는 것은 경제적 차원의 푸시풀 요인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B의 사례는 귀환이민의 의사결정에 그들의 취업 및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이를테면 사회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는 귀환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따지기

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Cerase가 말하는 '실패의 귀환'은 경제적 요인 외에 이민자들이 수용국가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수용이라는 요인을 함께 분석해야만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IV. 이민자의 고령화와 '정서적 귀환'

D의 귀환은 Cerase의 분류에서 '은퇴 귀환' 유형에 속한다. Cerase는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연금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보다 더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보장될 때 귀환하는 경우를 '은퇴의 귀환'이라고 명명했다(Cerase, 1074: 251). 특히 가족을 미국에 두고 있지 않은 이민자가 귀환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했다. D는 바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그녀는 만 26년을 미국에서 독신으로 지내고 2020년 고향으로 귀환했다. 그녀는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당시 영구이민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사학위가 끝날 무렵, 한국에서 IMF 사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그녀는 일시적 체류를 생각하고, 미국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나브로 임시 체류가 장기간의 이민으로 변해갔다. “나이도 성별도 차별하지 않는” 미국에서의 직장생활이 나빠 보이지 않았다. 은퇴시기에 맞춘 한국으로의 귀환 결정은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한국으로의 귀환을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물론 그 대가로 그녀는 한국정부가 외국인을 위해 발급하는 거소증을 3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그녀가 치르게 되는 불편은 한국생활이 주는 이득과 저울질 했을 때, 이득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운다. D는 자신의 귀환의 장단점을 이민자의 고령화와 연관 지으며 비교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 때 장점이 있고, 한국에 살 때 장점이 있잖아요. 단점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나이 드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이 들었을 때 오는, 우리가 건강, 헬스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되니까.”

그녀의 귀환동기에는 이민자로서 수용사회에서 나이 들어감, 즉 이민자의 고령화 문제가 배경으로 작동한다. 이민자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남에게 의탁의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운전을 싫어하는 D에게는 이동성이 제일 큰 문제로 부각된다. “여기서는(한국에서는 필자) 택시를 불러도 편하고 지하철도 다 있고 버스도 있고. 미국에서는 택시 불러도 택시 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제가 나이든 거를 생각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이 그녀의 독자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그녀의 노후 생활에 실용적으로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점이 한국으로의 귀환의 가장 직접적인 동력이다. 따라서 그녀의 귀환을 디아스포라 이민자의 의미에서 자신의 ‘고향’을 찾아, ‘뿌리’를 찾아 귀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녀의 한국으로의 귀환에는 한국인이라는 의식, 한국

어의 따뜻한 정감, 이 모든 것이 작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민족혼’에 대한 애착 또는 ‘디아스포라적 귀소본능’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D의 사례는 귀환의 실용적인 동기를 강조하는 Tsuda와 Song의 주장에 보다 어울린다. 그들은 귀환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출신에 대한 애착과 출신국가에 대한 고유한 민족적 유대감과 동경”이 아니라, “도구적이고 실용적인(instrumental and practical)” 판단이라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Tsuda and Song, 2019: 24).

그녀의 귀환의 의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녀의 서사를 관통하는 “외로움”이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녀의 귀환이 단순한 독신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 독신으로 수용사회에서 혼자 나이 들어감 그리고 그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D는 자신이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도한 혼자 나이 들어가는 한인 이민자에 자신의 미래를 투영한다.

“제가 봉사한다고 나이 드신 분한테 제가 친절하게 대하면, 와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느끼죠. 이분이 일주일 내내 제대로 말을 못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보니까 좀 마음이 서늘해지는데.”

그녀가 관찰한 노년의 한인 이민자들은 “일주일 내내 한국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방에 갇혀” 있었다. 양로원 생활을 하는 노년의 한인 이민자들은 한국 음식도 제대로 해먹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한국말 할 상대도 없었다.

“한인들 만나면 정신없이 얘기해요. 한국말이 너무 그리우니까. 그래서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만나면 또 그 이야기. 그 옛날이야기.”

D가 관찰한 노년의 한인 이민자의 외로움은 한국 음식을 제대로 해 먹을 수 없는, 한국어로 말을 할 수도 없는 수용사회의 생활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D의 귀환 결정은 바로 그녀가 관찰한 노년의 한인 이민자의 외로운 삶, 고립된 삶으로부터의 탈출하겠다는 욕구로부터 비롯되었다. 귀환한 D는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집에 간헐 일이 없다. 택시도 있고 지하철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집에 있는 생활 참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귀환한 그녀는 스스로를 “집순이”라 칭하며 집에 있는 것을 즐긴다. 그녀는 이제 이민자로서의 긴장이 서서히 풀려 나가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것은 D의 사례가 Dienel의 분류에서 ‘정서적 귀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한국으로 귀환한 재미한인이민자 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귀환동기를 파악하고자 했다. A의 사례는 귀환의 '성공'과 '실패'를 일방적으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A 가족에게 한국으로의 귀환은 이주 주기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다. 귀환이민 '이후'가 귀환이민 '이전'이 되는 경우는 C에게서도 드러났다. 본 연구는 Cerase의 귀환이민 유형 분류에 따라, '실패의 귀환'관점에서 B의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했다. B의 귀환은 수용사회에서 이민자가 느끼는 소속감 또는 통합의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귀환동기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의 귀환이 이민 '실패'의 결과라면, 그 실패는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사회통합의 '실패'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Dienel의 유형론을 빌려 귀환이민의 '정서적 동기'에 주목해 보았다. 특히 D와 C의 사례를 통해 귀환이민의 동기로서 정서적 요인이 이민자의 고령화와 맞물려,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고문헌

- 프리즈, 루드거, 최대희·장영숙 옮김 (2023). 『초국화: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는 사회화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문화사.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번역총서3.
- Cassarino, Jean-Pierre (2004). "Theorising Return Migration: The Conceptual Approach to Return Migrants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 Cerase, F. P (1974). "Expectations and reality: a case study of return mig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to Southern Ital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8(2).
- Dienel, Hans-Liudger (2016). *Rückwanderung als dynamischer Faktor für ostdeutsche Städte*. nexus Institut für Kooperationsmanagement und interdisziplinäre Forschung GmbH.
- Pries, L (2013). "Neue Dynamiken inter- und transnationaler Migration: Herausforderungen für Wissenschaft und Politik." In: Pusch, B.(eds) *Transnationale Migration am Beispiel Deutschland und Türkei*. Springer VS, Wiesbaden.
- Salaff, Janet W (2012). Return migration. In: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Migration Studies*. Routledge: New York.
- Tsuda, Takeyuki and Song, Changzoo (2019). "Diasporic Returns to the Ethnic Homeland": *The Korean Diaspora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lgrave Macmillan.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가족커뮤니티 그래픽스

『한국의 사회동향 2023』으로 본
한국의 커뮤니티 변화양상

* 한국의 가족 정책과 관련된 의미있는 통계 자료와 시사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스와 더불어 정부의 가족관련 정책과제와 사회 이슈,
세계가족정책 사례 및 통계들을 재구성 및 요약하여 제공한다.

이번 호는 통계청에서 2023년 12월 15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커뮤니티 변화양상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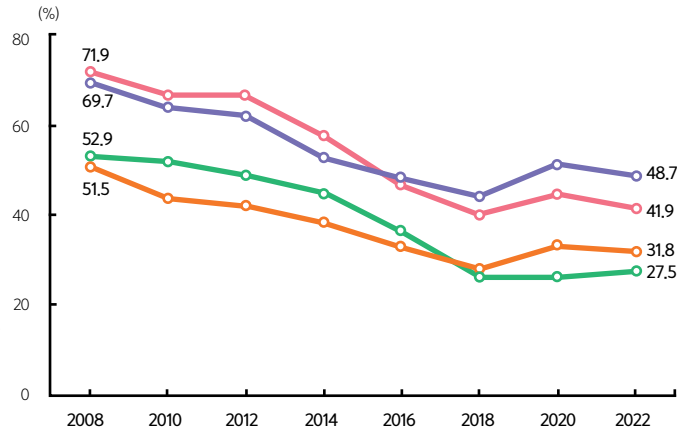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주: 분석대상은 20-30대로,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에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 남성 20-29세
- 남성 30-39세
- 여성 20-29세
- 여성 30-39세

성별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200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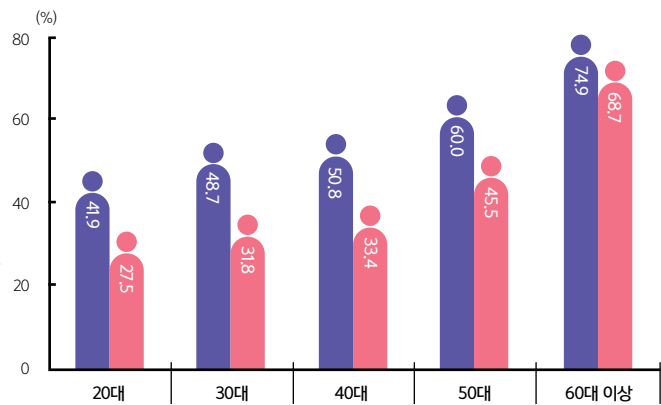


주: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2

- 남성
- 여성

성 및 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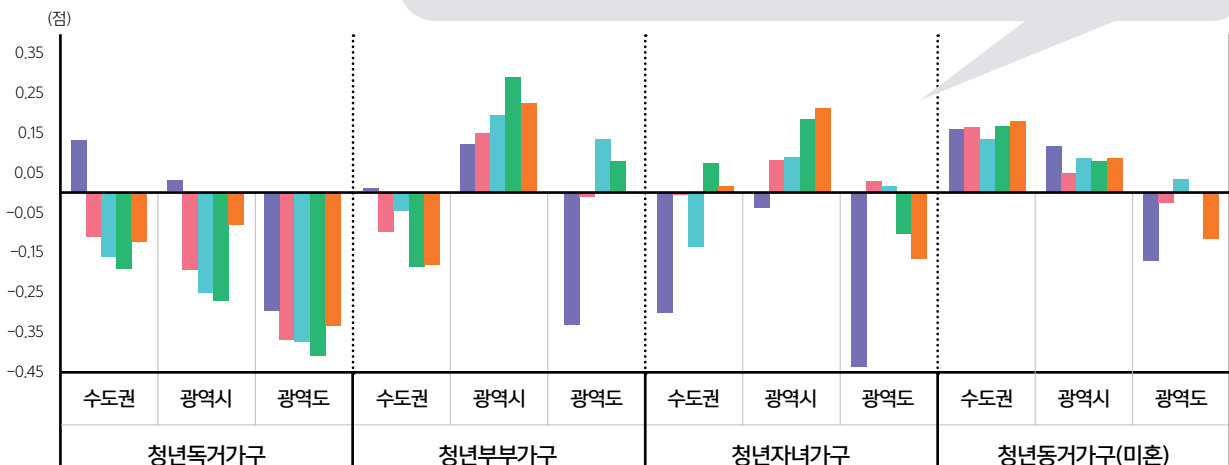


주거환경 만족도

- 대중교통 이용
- 녹지 공간
-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 문화/부대시설
- 위생 환경

주: 주거환경만족도는 각 항목의 청년가구유형 및 지역별 평균점수(5점 만점)을 각 항목별 평균점수 차이로 계산한 것으로 (-)값은 해당 항목의 평균값보다 낮다는 의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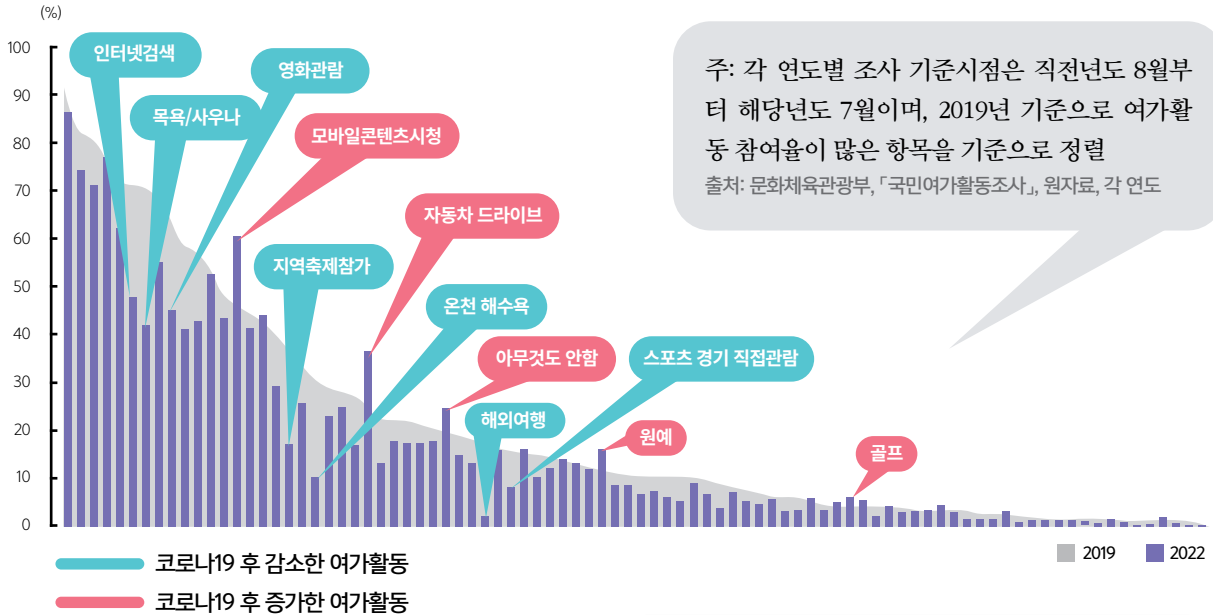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 올해 16번째 발간되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은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 주관적 웰빙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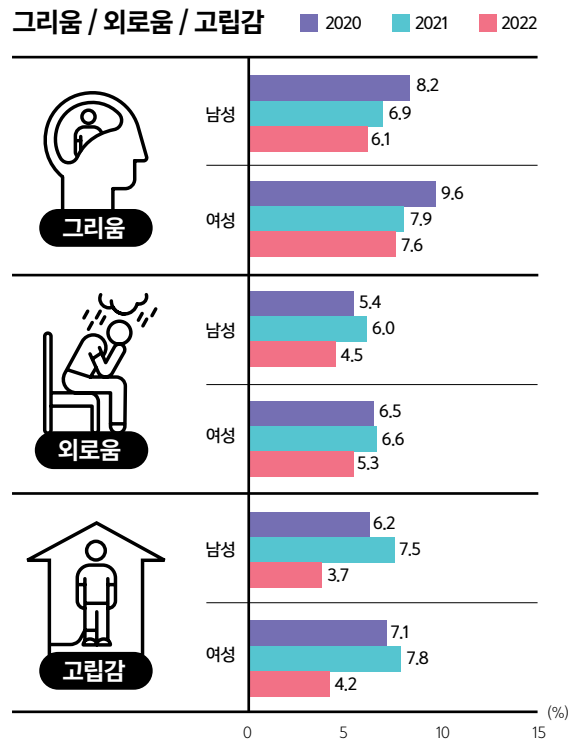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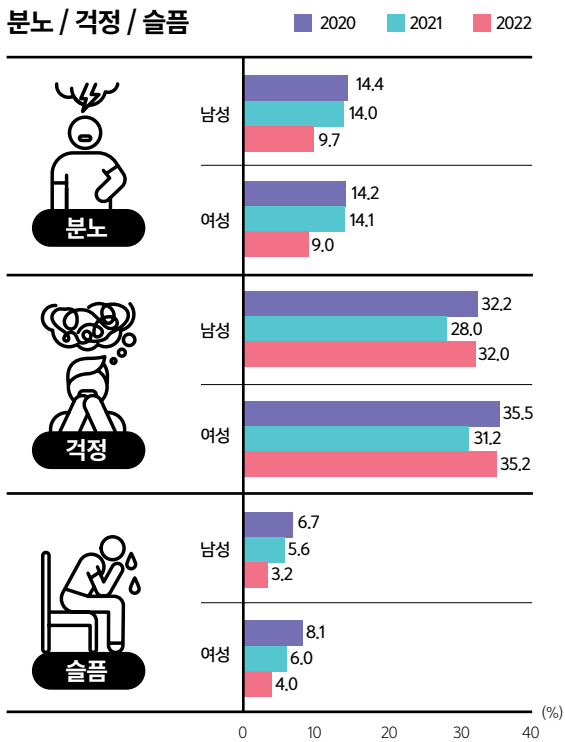
여가, 주관적 웰빙 영역

1) 코로나19 전후 여가 활동 참여율 변화 (2019년과 2022년 비교)



주: “코로나19로 인해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의 5점척도로 조사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연도.

2) 성별로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정서경험 (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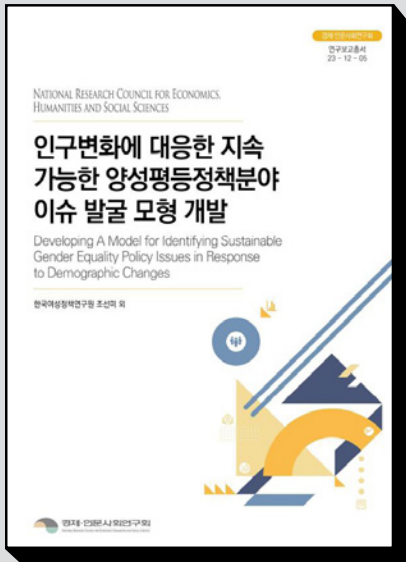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정책보고서 리뷰

- 인구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정책분야 이슈 발굴 모형 개발
- 가족형성과 사회 불평등에 관한 연구

* 정책보고서 리뷰는 올해 정부의 가족커뮤니티 관련
정책과제 및 연구를 소개합니다.



인구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정책분야 이슈 발굴 모형 개발

연구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책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미

출판일 : 2023년 7월

종류 : 연구보고총서

원문출처 : <https://www.nrc.re.kr/index.es?sid=a1>

<배경>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가족 및 일·생애, 돌봄위기 증가, 양성평등가치 확산 등 사회변화에 따른 인구·가구 분야 정책지형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성별·세대별 인식과 경험이 상이한 대표적인 국가적 난제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의사결정에 있어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 전망을 추정하고 거시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분야의 이슈 발굴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현안을 도출하고 수요동향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주요내용>

첫째, 인구구조 변화 추이에 대한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로 주요 집단별 전망을 살펴보고,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양성평등 분야 이슈 및 쟁점을 도출하였음. 둘째, 인구변화와 관련된 주요 양성평등정책 분야의 사회 이슈 현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개발하였음. 셋째, 향후 정책수요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 중요도가 증가하는 현안을 분석하는 미래 전망예측 모형을 개발하였음. 넷째, 모형 분석결과에 대한 시각화 도구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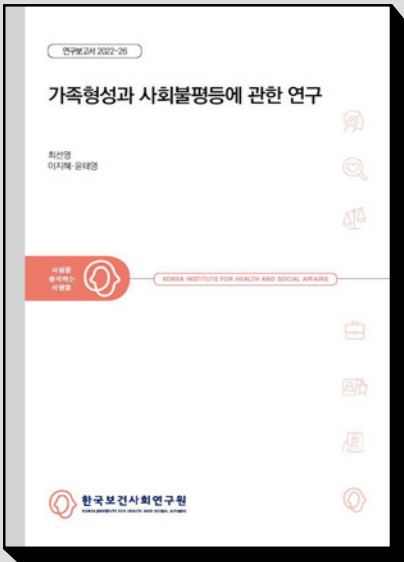
- 이 가운데 양성평등 이슈 관련 쟁점으로 우선,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제약을 해소하는 것 등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양성평등분야에서는 돌봄 관련 분담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음.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도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준을 알 수 있는 성별 임금격차 수준과 육아휴직 사용률에 있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한국의 순위가 매우 낮아 성평등한 노동환경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 수요 전망 및 미래예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뉴스 기사 및 학술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3년간 (2020년~2022년)의 분기별 전망 토픽을 예측하였음

- 우선, 뉴스기사와 학술자료 모두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 중심으로 당해 분기 정책현안을 파악한 결과, 사회적 돌봄(아동)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양육비 등의 이슈가, 조직문화에서는 ‘성평등’, ‘성희롱’ 관련 이슈가, 다양한 가족에서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미혼모’ 등의 이슈가 자주 사회적 수요와 학술적 관심이 모두 높은 주제로 나타났음.
- 아동 돌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성평등, 노동 시장, 근로 시간, 여성 경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가, 아동 교사, 초등학교 등의 돌봄 서비스가 제안되었음. 한편, 노인 돌봄에 관한 뉴스 기사와 학술 자료 분석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고령화 사회, 혼자 사는 노인, 교육 프로그램 등이 중요한 주제로 나타났음. 특히, 2022년 4분기에는 노인 자립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음.
- 성평등 노동환경에 대한 분석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가 주요 이슈로 강조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성차별 문제와 관련한 제안 및 통계 데이터가 주요 주제로 다뤄졌고, 직장에서의 성희롱 문제도 주목을 받았음. 또한, 일·생활균형 이슈에서는 근로시간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경력단절 재교육을 통한 해결책이 주로 논의되었음.
- 다양한 가정에 대한 뉴스기사와 학술자료 분석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부정적인 편견 및 범죄와 관련된 이슈도 주목받았음.
- 마지막으로, 재생산 권리에 대한 분석에서는 인구 감소와 임신 중단에 대한 법적 보호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으며,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접근과 취약 계층 보호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게 논의됨

<시사점>

이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양성평등정책분야와 더불어 학술자료와 뉴스분야도 교차하여 분석하는 등, 사회적 수요와 학술적 관심 모두를 포괄하여 정책 이슈 및 의제를 분석하는 모델을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가족형성과 사회 불평등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선영

출판일 : 2022년 12월

종류 : 연구보고서

원문출처 : <https://www.kihasa.re.kr/>

<배경>

결혼 감소와 결혼 지연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결혼 지연과 비혼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이 연구는 남녀 청년들의 노동 경험과 이들이 직면하는 제약조건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족형성 전망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심도 있게 고찰함.

<주요내용>

인적자본투자과 노동경력이 가족형성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초기 성인기(19-29세)는 가족과 노동의 각축시기에서 시장의 요구가 지배하는 시기로 변화하였음. 특히, 초기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따라 세대 내 이질성이 매우 커졌으며, 불안정한 일자리에 진입할 수록 결혼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계층유형 중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남녀의 결혼가능성 전망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결혼 후 계층지위 상승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음. 계층적 동질혼이 더 강화되어 나타나기도 하였음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는 계층보다는 성에 따라 크게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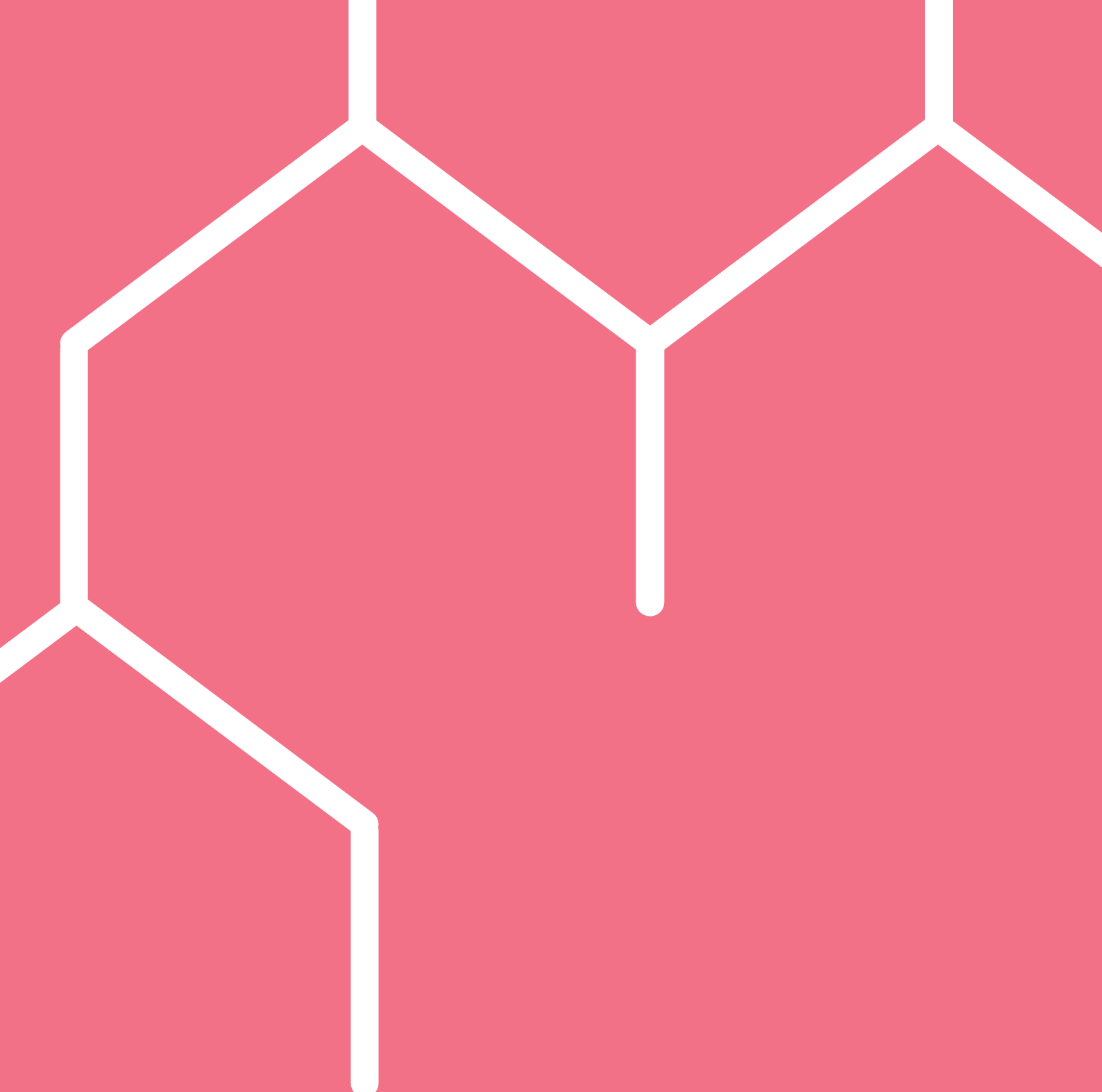
- 남성들은 결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결혼을 일관되게 지향하는 반면, 여성들은 생애시간을 분

할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결혼의 가치를 유보하였음. 특히 중하위층 남성들의 결혼 지연은 수단적이었으나, 여성들은 결혼지연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였음. 향후 젠더 불이익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계층의 효과는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함

- 생애 비혼은 남녀 모두에서 차선택으로 받아들여짐. 이는 ‘좋은’ 결혼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며, 동시에 결혼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맥락을 보여줌. 점차 청년들에게 결혼 지연은 시간을 지연하여 부족한 자원을 늘리거나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음

<시사점>

이 연구는 그 동안 n포세대 청년 담론에서 언급되는 결혼 담론과 달리 결혼 지연이 단순한 자포자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좌절과 체념과는 거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 결혼 감소 현상은 그렇기에 경제적 자원이나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함을 보여주는 연구임.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